

# 재배기술에 따른 유사 화곡류인 메밀(*Fagopyrum esculentum* Moench), Quinoa (*Chenopodium quinoa* Willd.), Amaranth(*Amaranthus hypochondriacus* L. X *A. hybridus* L.)와 화곡류인 귀리(*Avena sativa* L.)의 수량 및 품질 비교연구

## I. 생육, 수량 및 재배상의 문제점

건국대학교 : 이 재학, 김 기준, 호엔하임대학(독일) : W. Aufhammer

Yields and quality of pseudocereals Buckwheat(*Fagopyrum esculentum* Moench), Quinoa (*Chenopodium quinoa* Willd.), Amaranth(*Amaranthus hypochondriacus* L. X *A. hybridus* L.) as influenced by cultivation in comparison to cereal oats(*Avena sativa* L.)

## I. Growth, yield and problems of cultivation

Coll. of Agri. Kon-Kuk Univ. : J. H. Lee, K. J. Kim, Hohenheim Univ.(Germany) : W. Aufhammer

## 실험 목적

식품의 영양생리학적으로 고가치를 지닌 유사화곡류(pseudocereals)를 기준 화곡류만을 재배한 중부 유럽의 재배환경조건하에서 이 작물의 종실로서의 이용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보리, 밀 보다 사료 및 식품의 영양가치가 우수하고 동일한 여름작물인 귀리를 선정하여 같은 생육 및 등숙환경하에서 귀리에 대한 유사화곡류의 생육, 수량 및 문제점을 비교함.

## 재료 및 방법

작물 및 품종은 귀리(Bruno, Salomon), 메밀(Hruszowska, Emka 또는 Prego), Quinoa(Pichaman, Faro), Amaranth(K432, K343), 처리는 재식밀도 (귀리:D1 = 200, D2 = 350 밭아가능종자/m<sup>2</sup> ; 메밀 : 100, 500 밭아가능종자/m<sup>2</sup> ; Quinoa와 Amaranth : 15, 30 개체수/m<sup>2</sup>)와 질소비료수준(귀리 : N1 = 40+80, N2=40+40+40 ; 메밀 : 0, 50 ; Quinoa와 Amaranth : 80, 40+40kgN/ha)을 두었으며 두 처리를 조합하였다. 처리 T1 = D1 + N1, T2 = D1 + N2, T3 = D2 + N1 ; T4 = D2 + N2

본 실험은 1992년 1993년 독일 Hohenheim대학 부설농장인 Ihinger Hof (450 ~ 508m 해발 : 8°C 연평균기온 ; 694mm 연평균강수량)에서 4반복 분할구 시험법으로 실시하였다.

## 결과 및 고찰

1. 기계파종시 소립종자인 Quinoa 특히 Amaranth는 대립종자인 귀리, 메밀에 비해 낮은 입모울을 보였다. Pseudocereals은 수확시 화곡류인 귀리에 비해 식물체의 수분함량이 높아 캠바인 수확에 어려움을 보였다.
2. 총 건물생산량은 Amaranth가 14t/ha로 가장 높고, 메밀이 8.2t/ha로 가장 낮으며 귀리와 Quinoa는 11~12t/ha를 기록하였다. 다른작물에 비해 메밀은 처리간 명백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무비구(T1, T3)보다 종실형성기에 비료시용구(T2, T4)에서 1.2t/ha 더 높은 건물수량을 보였다.
3. Pseudocereals의 종실 건물수량은(손 수확시) 화곡류인 귀리(겉귀리 : 5.5t/ha, 쌀귀리 : 4.1t/ha)에 미치지 못하였다. 즉 메밀은 2.6t/ha로 가장 적고, Quinoa와 Amaranth는 3.7, 3.6t/ha를 기록하였다. 캠바인수확시 종실의 손실량은 작물간 커다란 차이를 보였으며 Amaranth가 균일치 않은 등숙의 문제로 27%로 가장 높고, 겉귀리는 6%로 가장 적었으며, 쌀귀리, 메밀, Quinoa는 각각 15, 20, 18%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캠바인 수확시 종실건물수량은 귀리(겉귀리 : 5.2, 쌀귀리 : 3.4t/ha), Quinoa 2.9, Amaranth 2.6 그리고 메밀 2.1t/ha 순으로 나타났다. 정제와 껌질(hull) 제거후 식품으로 이용 가능한 종실 건물수량을 보면 29%의 겉껍질(hull)를 가진 겉귀리로 인해 두 귀리품종간 차이가 없는 약 3.5t/ha를 기록하였고 메밀은 27% 껌질함량을 가져 1.4t/ha의 수준을 보였으며, 6%의 껌질을 가진 Quinoa와 겉껍질이 없는 Amaranth는 같은 2.6t/ha의 수량을 나타내었다. 귀리는 처리 T3, T4에서 메밀은 처리 T2에서 가장 높은 종실 건물수량을 보였으며 Quinoa와 Amaranth는 처리간 효과가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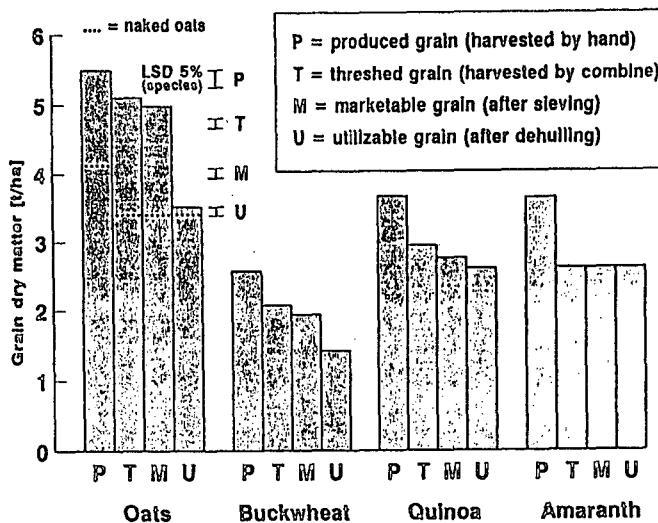


Fig. 1 : Grain yield categories of pseudocereals and o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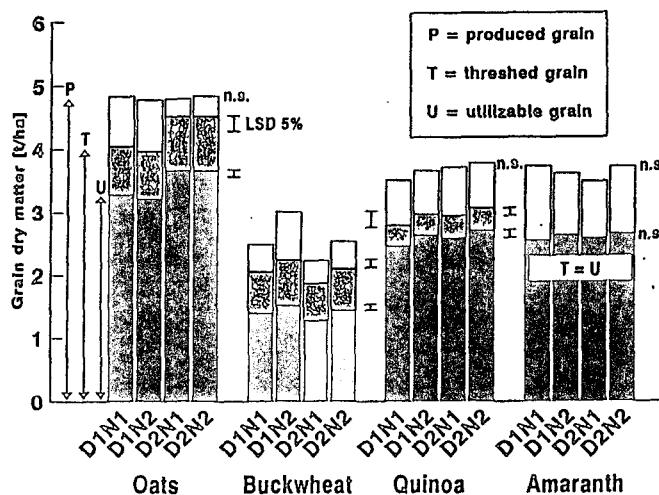


Fig. 2 : Grain yield categories of pseudocereals and oats as influenced by cultivation

Table. Percentage of dry weight losses between grain yield categories of four species.

Grain yield categories	Field trial 1992				
	Oats hulles	Oats naked	Buckwheat	Quinoa	Amaranth
P → T <sup>1)</sup>	7.6	12.6	23.7	23.5	33.1
T → M	4.4	0.0	6.9	8.5	0.0
M → U	32.0	0.0	26.9	7.6	0.0
Total P → U	40.0	12.6	48.1	35.3	33.1
Field trial 1993					
P → T	7.0	19.9	14.4	16.9	23.6
T → M	1.2	0.0	6.2	4.6	0.0
M → U	27.5	0.0	26.5	4.4	0.0
Total P → U	33.4	19.9	41.0	24.2	23.6

1) see Figure 1